



위원장 새해인사



촛불정부와 맞서야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던 2018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완의 해고자복직을 완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내부적 폐 청산을 반드시 이루는 한해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전노조 위원장 박 태 환

중부발전 노사 자기계발휴가 상한 폐지 합의

교대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는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휴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최대 2년 12개 발생하는 휴가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공통 보직자들의 경우 보직이 유지되는 동안 휴가사용이 원천봉쇄되어 불만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부발전 노사는 2018년도 임·단협 교섭을 통해 자기계발휴가 적치 상한(12일)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기 준	변 경
2개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	좌동
OH 기간에 사용 가능	좌동
자기계발휴가 적치 상한 : 12일	자기계발휴가 적치 상한 폐지

이번 중부발전 적치 상한 폐지는 자기계발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계발휴가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중부발전은 유일하게 임·단협 교섭을 발전노조와 기업노조가 공동으로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는 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가?

왜 서부발전 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고 김용균님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 경영진은 한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왜 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그들이 정말로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일찌감치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남에게 가족 운운하는 자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 그들은 사고발생에서 비롯된 책임을 사고 당사자인 고 김용균님에게 떠넘기더니, 고통은 ‘한가족’인 원청 직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원청 노동자들의 고통에 따른 분노를 하청 노동자로 향하도록 했다.

최근 서부노조는 정책위원장이라는 자를 내세워 발전노조에 대한 사측의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입사동기와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고인들의 죽음을 모독하더니, ‘서부발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악덕공기업으로 매도’했다며 모함했다.

만약 원청 노동자였더라면?

이번 컨베이어벨트 사고, 만약 원청 노동자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하다. 물론 원청 노동자에게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고 김용균님이 일하던 현장에서는 무려 28번의 설비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회사 직원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수치로도 드러나는 엄연한 사실이다. 발전5사에서 최근 5년 간 발생한 하청 재해자 비율은 97%이다. 이는 분명 발전현장의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발전현장의 외주화는 목적이 발전사의 규모를 작게 만든 뒤 민영화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위간부 출신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다.

요컨대 발전현장의 외주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정부들과 자리보전에 눈이 먼 발전사 경영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외주화를 되돌리는 방법은 직접고용밖엔 없다. 이것이 바로 발전노조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함께 해 주세요”

- 전 지부 추모 현수막 게시 및 추모 리본 패용
- 서명 및 모금운동에 함께 합시다
- 전국 분향소 조문 및 추모집회에 참여 해 주세요